

한국음악교육학회 2025 춘계학술세미나 보고서 2025 Spring Conference Report

김유진*

You Jin Kim

2025년 2월 22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춘계 학술세미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위기: 음악교육에서의 협력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음악교육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과 의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오히려 인간의 소통과 협력의 강화할 방안과 실재가 이번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원찬 교수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융합’을 주제로, 인공지능과 예술, 음악, 그리고 이를 음악교육의 맥락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교수는 시간의 개념에 주목하며, 시간이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억과 예측이 결합된 인간의 인식일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물리학적으로도 중력과 에너지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을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개별적인 입자의 분포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열역학과 양자중력학의 관점에서 시간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개념일 수도 있으며, 우주 또한 주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이 원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음악교육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로 김유미 박사는 AI 기반 예비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기존 대학 시창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소개하였다. 김 박사는 AI 시창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 간의 수준 차이, 제한된 수업 시간으로 인한 1:1 지도의 어려움 등 시창 수업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AI의 정확한 실시관 분석, 내장된 과제 제공,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개별 수준에 맞춘 연습 예제 제공

* 경희대학교 교수

등의 기능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 박사의 AI 기반 교육은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넘어 교수-학습자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학습자의 주도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교육학과 음악이론의 학제 간 협력이 인공지능을 매개로 역동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AI 프로그램의 피드백 기능 정교화, 다양한 플랫폼과의 호환성, 학습자의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분석과 방향 제시, 그리고 학습 동기 유지를 위한 전략 마련 등은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교사 교육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이어서, 이종현 현장 교사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음악이론 개별화 학습’을 주제로 음악이론 수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을 제안하였다. 그는 인공지능 챗봇이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은 기술 기반 학습 방식에 친숙하고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교육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교사의 발표 내용에는 현장 교사와 학생 간의 교류와 소통에서의 인공지능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원리가 담겨있었다. ‘Mizou’라는 챗봇 빌더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가 직접 학습 내용을 설계하고 구성함으로써 인공지능과 교사, 학생 간의 협력과 소통이 순환적으로 설계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른 단계별 학습과 심화 학습의 확대, 챗봇과의 개별화된 상호작용이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형성 등의 유용한 실재가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이 교사는 개별화 학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한 수준과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을 그룹화하여 협동학습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은혜 예비 교사는 현장 교사와의 협력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이란 주제로 가창 교육에 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인간의 목소리에 담긴 고유한 음향적 특성과 재질이 음악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예비 교사가 K-대학에 탐방한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시연하는 가운데 현장 교사와의 역동적인 협력을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Tone Transfer를 활용하여 음색이란 개념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고유한 색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며 수업 참여에 열의를 보인 점이 이 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였다. 현장 교사와 예비 교원의 협력이 강조되는 오늘날,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연구적 지식과 학습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장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이는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현장 기반 연구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춘계 학술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환원되며, 순환적 구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활용은 시대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편리함을 누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졌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는 매개가 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기술 의존성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번 학술대회 전반에 담겨있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경계 설정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인간의 삶 속으로 의미 있게 포용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될 과제와 질문들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